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선플 운동 www.sunfull.or.kr

제 13 호 2019년 12월 31일 (화)

밝은 사회를 위한 좋은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드는 신문 안내 : (02) 535-3449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추진

제2의 최진실, 설리 등 악플 피해자 발생 막는 길은 '시민의식개선'

10월 29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김수민 국회의원은 10월 29일(화) 15:0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악플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 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유니, 최진실, 사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져왔다."며,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시행으로 장난삼아 올린 악플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겠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헤이트스피치(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70여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7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97명중 294명(99%)이 '국회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국회의원 및 미국 주 하원의원, 필리핀 하원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응태 기자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30인 선플상 수상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 개최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이 열렸다.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두, 강석호, 이찬열, 유성엽, 윤소하)와 공동으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수록된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대상에는 전혜숙 (민주, 서울 광진갑), 윤재옥 (한국, 대구 달서을), 주승용 (바른, 전남 여수을), 박지원 (무소속, 전남 목포) 국회의원이 선정되었고, 선플상에는 기동민 (민주, 서울 성북을), 김병욱 (민주, 경기 성남분당을), 김성찬 (한국, 경남 진해), 김성태 (비) (한국, 비례), 김세연 (한국, 부산 금정), 김수민 (바른, 비례), 김학용 (한국, 경기 안성), 노웅래 (민주, 서울 마포갑), 도종환 (민주, 충북 청주흥덕), 문진국 (한국, 비례), 박완주 (민주, 충남 천안을), 유은혜 (민주, 경기 고양병), 윤준호 (민주, 부산 해운대을), 이동섭 (바른, 비례), 이양수 (한국, 강원 고성양양), 이주영 (한국, 경남 마산합포), 이태규 (바른, 비례), 이헌승 (한국, 부산 부산진을), 임이자 (한국, 비례), 임종성 (민주, 경기 광주을), 전재수 (민주, 부산 북구강서갑), 조승래 (민주, 대전 유성갑), 조훈현 (한국, 비례), 채이배 (바른, 비례), 최인호 (민주, 부산 사하갑), 한정애 (민주,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플대상을 수상한 전혜숙 의원은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다. 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응원의 의미로 인식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윤재옥 의원은 "국회 내 거친 표현은 정치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사에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며 아름다운 언어사용으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전국 청소년이 선정해준 상이라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언행으로 청소년, 국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아름다운 댓글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경 기자

'2019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선플 시상식'

악플추방, 청소년 선플러들이 앞장선다

12월 14일(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2019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이 열렸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14일(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2019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보고대회는 올해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기자단 활동을 통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선플상 시상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평택 국제대학교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예방 연극공연이 진행되었고,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에서는 '안양 양명고등학교 정회석 교사'가 선플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회석 교사는 발표에서 "선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다"며 다양한 선플 활동을 통해 끈끈하게 뭉쳐지고 있는 학생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모습을 소개했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상에는 당산중학교 윤서희(청소년 표어부문) 학생, 오산고등학교 한규천(선플교육자료 부문) 교사가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대구 대덕초등학교 박준우(일반 표어부문), 이금진(일반 수필부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에는 한양대학교 황순형(UCC부문), 서천초등학교 이예근(청소년 수필부문), 박예은(포스터만화부문), 법무부 장관상에는 정광고 고훈(SNS블로그 부문), 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국제대학교 오경숙, 김소연, 황예빈(선플논문부문), 양명고등학교 정회석(선플활동결과보고 부문),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박현숙(선플자원봉사 부문) 등 전국에서 선플공모전과 선플캠페인 우수 참가자들이 이날 상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회상임위원장상, 경찰청장상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상, 대학 총장상, 구글, 네이버, KT, 선플재단 이사장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아홉살 선플인생'이라는 수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천초등학교 이예근 학생은 "언어순화 교육 때 선생님께서 욕을 들으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셨다. 만약에 내가 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열 사람의 뇌가 조금씩 쪼그라든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나쁜 말들을 빠짐없이 듣는 것은 나의 귀와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이지만, 내 뇌는 열 번이나 쪼그라들게 된다"며 "친구들과 함께 선플운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설리, 구하라의 사례처럼 악플 한마디, 한 줄의 글이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는다"며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의 악플을 보면 방관하지 말고, 악플러들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바로잡고, 선플달기를 통해 악플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용 기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

〈선플대상〉

전혜숙 의원 (선플 大賞)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입니다.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선플대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여러분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좋은 표현이 그만큼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도 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제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선플대상 수상을 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응원의 의미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선플 大賞)

청소년들이 정치인의 언어를 보면서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은 가장 의미 있고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거친 표현이 정치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정제된 언어 사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도 매사에 자중자애 하며 국회 내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정착시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

주승용 의원 (선플 大賞)

반갑습니다.

국회부의장 주승용입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이 선정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항상 이 상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청소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말과 글로 여러분의 주변을 배려하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가치와 인성을 드높이길 바랍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바르고 아름다운 말로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어른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선플 大賞)

청소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분석 평가하여 받은 상이라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말과 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저부터 각별히 노력하고 관련된 문화와 정책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플상〉

기동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무척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플상은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국회 회의록을 검토해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 30명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순수하고 올곧은 학생들의 눈을 통해 선정된 상이기에 더욱 영광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모범을 보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모지고 날 선 말로 깊은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선플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로 주변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찬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자유한국당 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청소년 SNS 기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청소년들이 뽑은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쁨이 두 배로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바른 말 좋은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민생과 안보 모두 잘 챙겨 청소년 여러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평소 존경하는 서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선플상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받는 상이 아닌 평소의 언행을 평가하여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는 수상입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악플이란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상의 기쁨을 전하며, 선플상이 국회를 넘어 우리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언행이 더욱 오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입니다.

최근,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헐뜯고 비난하는 사회풍토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프라인을 넘어 '악플'과 같은 행태로 온라인상에서도 나타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옳고 그른지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름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선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법률 등 모든 갈등이 최종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국회인 만큼 다른 정당, 다른 의원의 철학과 정책을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 '국회의원 선플상'의 의미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플 문화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입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로 대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 폭력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 등 수많은 악플들은 사람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얼굴 없는 살인자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플재단의 '선플달기운동'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갈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따뜻한 말 고운말로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입니다.

먼저 이번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여 주는 상을 받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언행이 중요하다는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언행으로써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말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부터 정치, 사회, 산업과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포탈사이트와 SNS를 통하여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단지 온라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넘어와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루게릭 환자를 응원하기 위한 버킷챌린지가 하나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무하는 악플과 혐오표현은 막대한 사회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말이 칼이 되는 행태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운동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도종환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도종환입니다.

먼저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정은 고등학생·대학생 기자단 여러분들이 저의 말과 글을 직접 평가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말과 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격한 표현들이 국회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년 선플재단이 선정하는 선플상은,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보다 큰 책임감과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하며, 여러분들의 선플운동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상의 의미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 걸맞은 아름답고 섬세한 말과 글로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진국 의원입니다.

제가 속한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뒤덮여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귀중한 상을 받아도 되는지 송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 상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분들이 몇 달간 분석하여 직접 선발해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껏 받았던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품행을 바르게 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록 지금도 국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2019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다보다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도 엄중하고 단호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소로, 진솔하고 품격있는 정치를 펼쳤다.

감사합니다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유은혜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 상은 청소년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꼼꼼히 분석해 뽑아 준 결과라고 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배려와 응원의 선플문화가 중요해진만큼 선플달기운동이 오래 지속되길 응원합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따뜻한 말로 국민을 대변하고 배려와 존중의 언어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전국 청소년 기자단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선정해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선플'이라는 말보다 '악플'이라는 말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범죄이지만, 익명의 가면에 숨어 소통의 공간을 비방의 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악플의 세상에서 '선플상'을 받게 되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말과 글이되고,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뒤집어보면 바른행동이 말과 글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로 세워 인생을 잘 살게하는 것입니다.

선플로 우리 인생과 사회를 잘 가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하는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악플과 헤이트스피치 추방, 인터넷상의 인권운동을 펼쳐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서 주는 상은 올해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설리법'이 발의되고, 포털 사이트들의 연예 뉴스 댓글 운영 폐지가 주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악플과 헤이트스피치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플상 수상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단어 선택에 앞장서겠습니다.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물심양면 애써주신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선플과 대비되는 악플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려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며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은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피력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결여된 책임의식으로 순간의 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기왕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이 인터넷 상에 오고가길 바랍니다.

악플이 아닌 선플(sunfull)이 가득하여 밝고 따뜻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

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이 선정하는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먼저 최근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악플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이 만들어 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은 덕으로, 나쁜 말은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악플 대신 격려와 희망을 주는 선플을 통해 주변과 이웃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품격있는 정치, 상대를 배려하는 정치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불신 받는 정치를 바꾸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치권의 막말시비로 국민의 정치 불신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진영과 이념에 갇힌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민생외면, 위기극복에 대한 무능력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양극화와 사회통합을 막고 공동체의 선을 깨뜨리는 중심에 막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과 SNS 상의 막말은 우리를 ICT 문화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난무하는 저급한 언어를 지켜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품격 있는 국회, 타협과 절충의 정치, 그래서 위기극복과 사회통합,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말이 넘치는 사회를 꿈꿔 봅니다.

뜻 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여러분, 시상을 준비해주신 국회선플정치위원회와 (재)선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우선 매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수상명단을 보니 평소 정중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즈음 우리 정치는 상대방에게 거친 말들만 쏟아내면서 서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만 주장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경향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속에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정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언행을 통해 품위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2019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직접 수여해주셨기에 너무나도 뜻 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온라인 공간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선플 운동에 동참하여 무분별한 악플 사용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여 조금 더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선플상을 수상한 국회의원으로서, 아름다운 언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플상은 꼭 받고 싶었던 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바로 '말'이 가진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말'이 가진 힘을 항상 유념하며, 매사에 따뜻하고 모범적인 언행으로 청소년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겨주신 (재)선플운동본부와 SNS학생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賞〉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회의록을 살펴가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갈등과 증오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오늘날, 말의 품격과 말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언어는 칼이 되어 가슴에 박히지만, 따뜻한 언어는 지지 않는 꽃으로 가슴에 남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안을 얻기도, 삶의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따뜻한 언어로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네며, '말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이념과 의견이 오가는 국회에서 품격 있는 언어로 상대를 설득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며 선플운동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훈현입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즘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이유 없는 악플의 대상이 되고 익명성에 숨어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 합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수단인 '말'이 무기가 되고 독이 되어 모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처럼 언어는 품격의 척도가 됩니다.

품격 있는 말을 통해 나의 그릇을 넓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모범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賞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직접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선정한 수상자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서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를 잘 사용한 것 같아 더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격조 있는 언어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숨어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는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작금의 현실을 목격하며,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선플운동 등 존중과 배려의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따스한 말 한 마디가 우리 사회를 밝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발 맞춰 아름다운 말과 정치로 국민께 희망을 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

언제나 아름다운 말 사용과 희망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주변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입니다.

국회에서는 말의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리 공들여 정책을 만들었을지라도,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정제되고 부드러운 말들로 '설득'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비해 정쟁의 요소가 많은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신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수상을 마음에 새겨, 청소년들이 갖게 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치·이해·소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평소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상호존중을 대화의 기본으로 임해왔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직접 국회회의록을 분석해 선정했다고 하니 제겐 더욱 뜻 깊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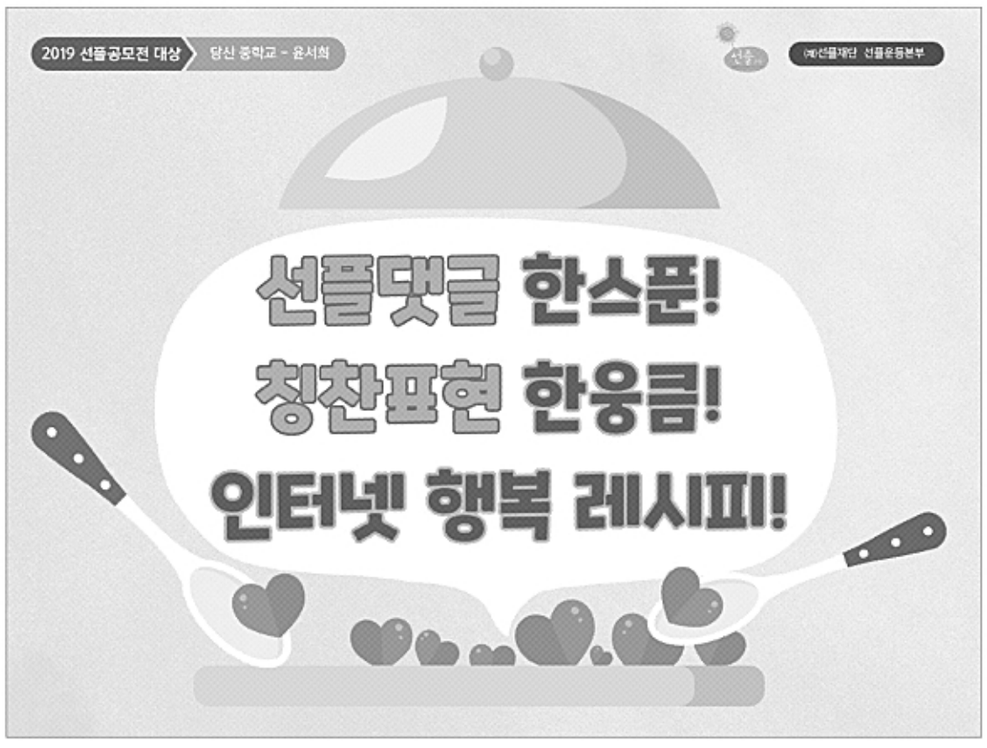
현대사회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소통의 편의성이 증대됐지만 그 이면엔 말과 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상 피해를 입는 감정노동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니 말과 글의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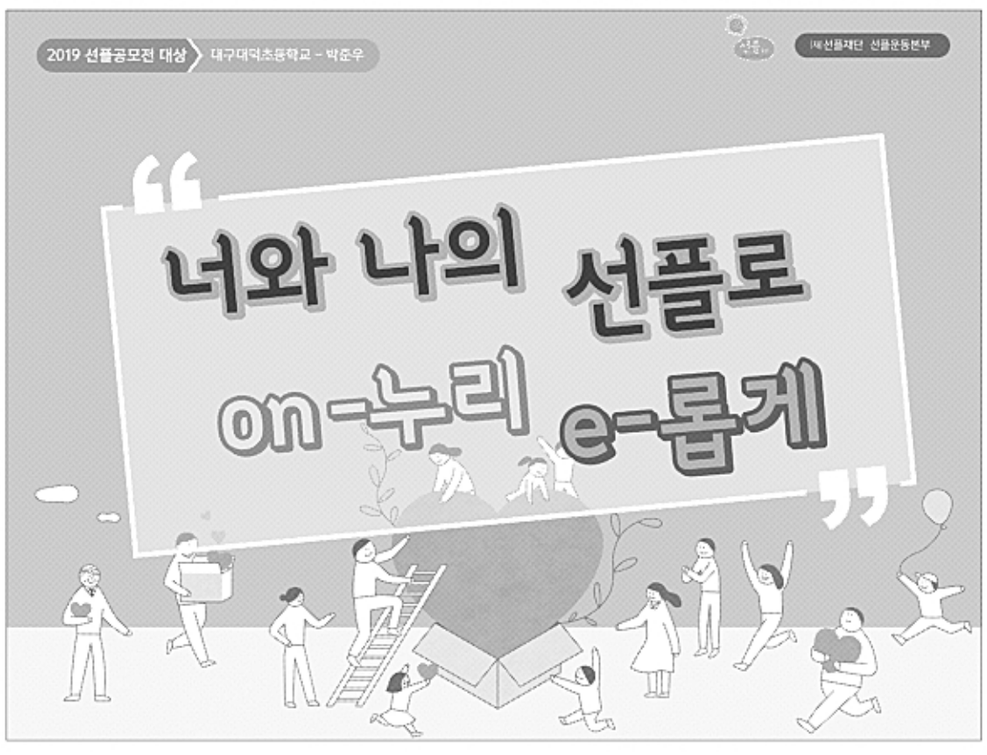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과 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플운동본부의 활동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속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올바른 언어 사용 확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존중과 배려의 언어 문화가 국회에 널리 퍼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플문화확산공모전 수상작 〉

〈 포스터 (만화) 부문 : 대상 / 박예은 〉



〈 표어 (청소년) 부문 : 대상 / 윤서희 〉



〈 표어 (일반) 부문 : 대상 / 박준우 〉

한 마디 좋은 말이면 충분하다.

〈 수필(일반) 부문 : 대상 / 이금진 〉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시절 나를 성장시킨 것은 담임선생님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숫기가 없는 아이였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사람. 주목을 받으면 손발이 얼어붙고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사람이 나였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나를 '우리 반 발표왕'이라고 부르셨다. 첫 국어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날짜와 같은 돌림번호 중 하나였던 내가 1단원 낭독자로 호명되었다. 첫 수업부터 아이들 앞에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니 눈앞이 아득했다. 더듬거림과 떨리는 목소리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겨우 발표를 마친 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참 좋구나. 이후 나는 낭독 전담이 되었다. 민망하기만 했던 낭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창해졌다. 어느새 낭독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십 번은 더 들었을 선생님의 칭찬이 그리도 고팠다. 한해가 끝나갈 무렵엔 자타공인 '발표왕'이었다. 선생님의 별명은 칭찬 기계였다. 아이들마다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칭찬거리를 발견해내셨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반 아이들은 우연과 운명의 장난으로 천재와 영재들만 모아놓은 것이 분명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란 아이들의 의문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라는 확신으로 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로써 각기 다른 아이들을 모두 저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발견이 아니라, 개척이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선의라지만, 이는 '말과 행동'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어렵다. 빵 하나를 훔친 일로 수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나쁜 길에 들어서려 했던 장발장을 돌려세운 것은, 그의 선함을 믿는 미리엘 신부의 하얀 거짓말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는 무작위로 선발한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전원을 우등생으로 만들었다지 않는가. 결국 '좋은 말'이란 삶의 힘을 북돋는 응원가이며 강력한 주문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좋은 말을 찾는다. 악플로 고통 받는다는 한 연예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사에 달린 모든 댓글들을 읽는다고 말했다. 선플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수십?수백 가지 악플에 받은 상처도, 좋은 댓글 하나면 모두 치유된다고 한다. 이처럼 백 마디 나쁜 말보다 한 마디 좋은 말의 힘이 훨씬 강하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 중 하나를 떠올려본다.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은 삶의 양분이다. 선의는 목소리를 통해 민들레 홀씨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까지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든다. 길을 걷다가 욕설을 들으면 얼굴이 찡그려지지만, 웃음소리를 들으면 덩달아 웃음꽃이 핀다. 말에 담긴 기운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마련이다. 말에 선의가 필요한 이유다. 좋은 말을 건네기 쑥스럽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건네는 것이다. 기사를 읽고 나면 비판보다는 '힘내세요'라는 선플 하나 적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한 마디 좋은 말이면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 멋진 일이지 않은가.

〈 사진 부문 : 대상 / 최유빈 〉

고사리 선플 이야기

〈 수필(청소년) 부문 : 대상 / 이예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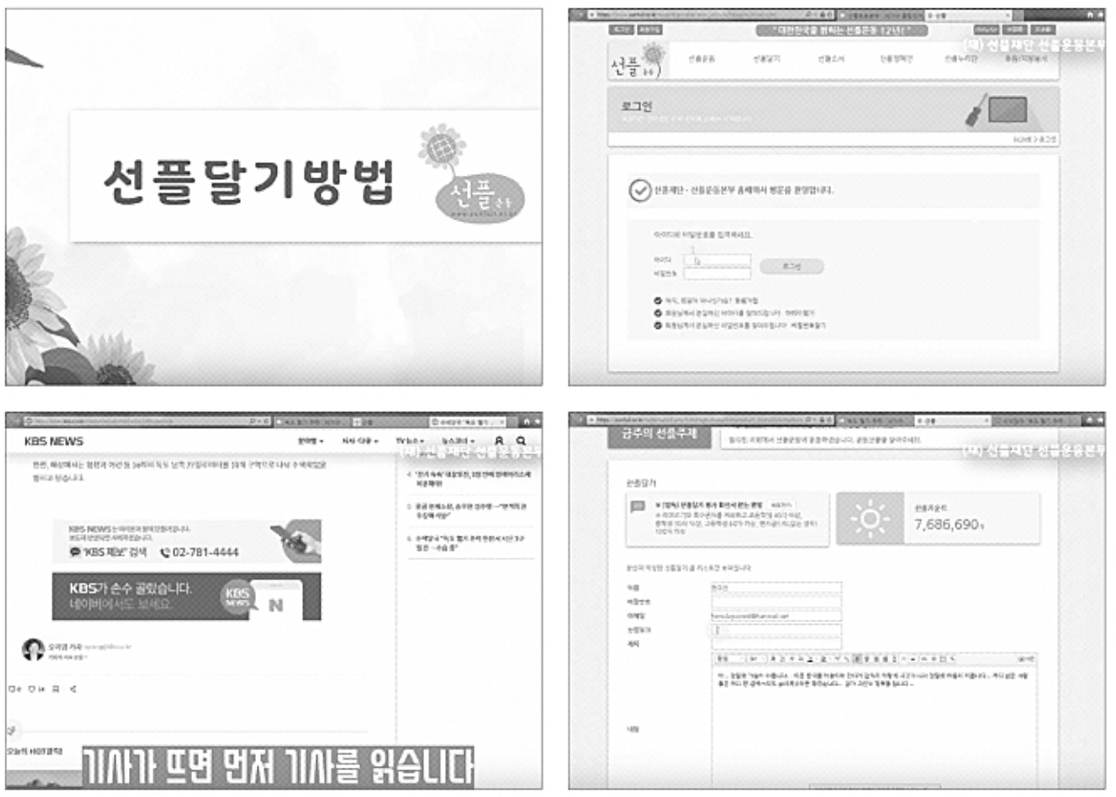
2학년이 되어서 김철래 선생님께 처음 선플 운동에 대해서 배웠다. 나는 그동안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하지 않아서 선플이나 악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부모님께 백감사 쓰기를 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글로 쓰지 않아서 뭐라고 써야할까 조금 막막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계속 생각이 났고, 마지막 100개를 다 써갈 때쯤 앞에 쓴 것을 다시 읽어보니 겹치는 것도 많고 무엇을 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많아서 아쉬움이 들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자주 써보았으면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전했을텐데.. 어버이날에 내 백감사 편지를 받은 엄마와 아빠는 깜짝 놀라며 꼭 안아주셨다. 쓰는 동안에는 손이 많이 아팠는데, 드릴 때는 뿌듯한 마음이 들어 어깨가 으쓱했다. 부모님 다음으로 선플 엽서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께 보내기도 했다. 엽서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이유를 적었더니 읽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나도 기분이 좋았다. 선플과 악플 실험도 했다. 나는 식빵으로 실험을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식빵에게도 마음 아프게 들렸는지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었다. 내 마음에도 곰팡이가 핀 것 같았다. 언어 순화 교육 때 선생님께서 욕을 들으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셨다. 만약에 내가 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열 사람의 뇌가 조금씩 쪼그라든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나쁜 말들을 빠짐없이 듣는 것은 나의 귀와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이지만, 내 뇌는 열 번이나 쪼그라들게 된다. 악플은 어쩌면 남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행동인 것 같다.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내 꿈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꿈도 응원하는 글도 남겨보았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꿈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그 말들이 생각나서 기분도 나빠지고 열심히 해보려는 기운도 빠질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자신이 없을 때 들려오는 누군가의 응원 한 마디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선플 운동을 배우고 친구들과 캠페인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선플이 얼마나 좋은지, 악플은 얼마나 나쁜지 배워서 다행이다. 나도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에 착한 말을 전하는 상냥한 사람이 되고 싶다.

https://blog.naver.com/go144

〈 SNS (블로그) 부문 : 대상 / 고훈 〉

https://youtu.be/trS_g0AMaPk

〈 UCC(일반) 부문 : 대상 / 황순형 〉



〈 교육자료 부문 : 대상 / 한규천 〉

[2019 선플 10대 뉴스]

올해는 대중에게 사랑받던 가수 '설리'와 '구하리'의 슬픈 소식에 사이버 윤리와 선플에 관심이 쏠리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발의 등 선플인성교육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한해였다.

영국 윌리엄 왕자 안티 블링 응원 캠페인과 '필리핀 하원의회 사이버폭력 추방 선플 결의안 발의 및 선플인터넷 평화선언식' 등 글로벌 선플달기 캠페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선플운동 본부에서는 한 해 동안 선플운동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선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KT-선플재단, 인터넷 윤리 및 문화 선진화 위한 업무협약

- 국가대표 통신사로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캠페인 및 KT그룹 임직원 선플운동 참여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www.sunfull.or.kr)과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5월 24일(금),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인터넷 윤리 문화 선진화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시행, 사업자인 KT그룹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의 선플운동 참여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 윤리와 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은 "KT는 국민기업으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건전하고 선진적인 인터넷 문화 조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 "특히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올바른 인터넷 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에, 선플재단과 협업해 청소년 인터넷 문화 개선 캠페인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KT는 정보문화의 달 6월을 맞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사회공헌캠페인을 추진하고, 여름·겨울방학 시즌에 KT그룹 임직원과 자녀들이 'KT그룹 임직원 패밀리 봉사활동'을 통해 선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구글코리아와 함께 인터넷 언어문화 개선 나서

- 인터넷상의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한 '전국 청소년 선플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발표

인터넷 기업 구글코리아(Google Korea)는 5월 28일(화), 국회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선플운동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인터넷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전국 청소년 선플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구글 후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국 청소년 선플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대학교에서 악플·혐오표현 추방활동에 참여할 100여개의 동아리들과 함께 진행하는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실천 캠페인 활동이다. 더불어 선플 인터넷 언어문화개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선플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단체에 인터넷 언어문화개선 교육도 제공한다.

이번 '전국 청소년 선플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구글코리아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및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도구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를 2017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총 1만 7천여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이나 에티켓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법을 배우게 있다.

구글코리아 존리 사장은 "선플재단과 함께 '전국 청소년 선플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의미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구글과 유튜브에 보내주는 한국 네티즌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 책임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구글코리아는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과 선플 운동 등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2019 선플누리단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및 선플지도자 연수'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 특훈교수)는 3월 30일(토), 서울 한양대학교 국제관에서 전국 초·중·고 선플동아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선플누리단활동 지원사업 설명회 및 선플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구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 및 선플지도자 연수는 선플홍보대사 선우림 배우의 사회로 선플실천 선서에 이어 권역별 참가자 소개로 시작됐다.

선플교사협의회 광운전자고 이상종 회장의 악플 혐오표현 추방 시민 운동 실천 선서와 인사말에 이어 표창장 수여, 선플교사협의회 임원 위촉장, 선플청년포럼 위촉장, 한양대학교 선플 홍보대사 위촉장, 선플사이버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 수여로 이어졌다.

2부 순서로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가 '동아리활동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경기 용인 서천초등학교 김철래 교사와 서울 대신고등학교 공원기 교사의 선플운동 동아리 지도 사례 발표에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선플동아리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 롯데홈쇼핑,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 전개

- 감정노동자 배려문화정착 UCC공모전 시상식 및 광화문 거리캠페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완신)은 6월 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난 해 12월 부터 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접수된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공모전'의 우수 영상 상영과 시상식을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및 300여명의 청소년 선플누리단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차별과 악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감정노동자 740만명 가운데 차별과 심각한 악플, 혐오표현으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개최된 이번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UCC공모전'에는 259개 팀이 출전하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수상 대상작에 대해, 실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의 콜센터 직원들의 최종 투표를 거쳐 부문별 (대학생&일반부문, 청소년부문) 영예의 대상을 선정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센터 상담원의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별 보건소 및 건강센터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신건강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통화 후에는 컬러링북, 다과 등으로 구성된 휴식키트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광운대학교-광운중학교, 윌리엄 왕자의 안티사이버블링 캠페인 응원 글로벌 선플캠페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이사장 조선영)의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와 광운중학교(교장 임하순)는 영국판 선플운동으로 불리우는 '영국 윌리엄 왕자가 이끄는 로열재단의 안티사이버블링 캠페인'을 응원하는 선플달기 캠페인(http://princewilliam.sunfull.or.kr)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을 추진중인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세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선플운동과 같은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응원하고 있다.

윌리엄 왕자의 안티사이버블링 캠페인 응원사이트에는 전국에서 1,700여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응원댓글과 응원영상이 올라왔으며, 6월 20일(목)에는 광운대학교 홍보대사 비마랑 학생들이 인근 광운중학교를 찾아 중학생 동생들에게 악플의 심각성과 선플운동의 효과 등을 교육하고, '윌리엄 왕자의 악플추방운동' 응원 영상캠페인을 촬영했다.

영국 로열재단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 왕세손은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소셜미디어상의 폭력으로 식이장애를 앓게 된 소녀들과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근절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윌리엄 왕세손은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동생 해리 왕자와 함께 영국 로열재단 정신건강 캠페인의 하나로 사이버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법인 전체 초·중·고·대학교에서 선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영국 윌리엄 왕자가 추진하는 악플추방 캠페인은 한국의 선플운동과 같은 취지의 활동으로, 영국의 악플추방운동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중학생 동생들에게 선플교육을 지도했던 광운대학교 비마랑 회장 하정원 학생은 "중학생 동생들에게 악플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플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영국 윌리엄 왕자에게 악플추방 캠페인 응원 선플사이트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 '2019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 특훈교수)는 지난 7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마을에서 청소년 선플누리단 학생들과 선플지도교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 구글코리아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2019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지도교사 여름캠프'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플을 추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와 비난을 퍼붓는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캠프 첫째날은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의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제갈정웅 이사장이 감사 선플편지쓰기, 전국선플 사이버 기자단 지도교사 공원기 대신고 교사의 '선플사진 촬영 교육 및 콘테스트 안내'에 이어 '선플 치어리딩' 체험이 진행됐고, 둘째날은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주)나들이에서 환경교육 업사이클 부싯탑 만들기 체험과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박현숙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로 '공동체 협동체험' 등이 진행됐다.

◑ 선플인터넷문화운동, 필리핀에서 제3의 한류 이끈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10월 2일, 필리핀 하원의회에서 '필리핀 하원의회 사이버폭력 추방 선플 결의안 발의 및 선플인터넷평화선언식' 개최와 함께 12명의 필리핀 하원의원들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을 시작으로 의회내 선플운동 전개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외교부 공공문화외교사절)의 제안으로 플로리다 로베스 (Florida Robes) 필리핀 하원의원이 주도하여 필리핀 하원의회에서 소셜미디어상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존중과 배려, 긍정의 '선플 인터넷 문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이어 10월 3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필리핀 엔더런 칼리지와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선플대학생 대표들이 엔더런 칼리지를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선플달기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필리핀 엔더런칼리지와 선플운동본부는 필리핀 전역에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 선플달기 및 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기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선플운동본부와 김수민 의원,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추진

- 제2의 최진실, 설리 등 악플 피해자 발생 막는 길은 '시민의식개선'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김수민 국회의원은 10월 29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악플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유니,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져왔다"며,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시행으로 장난삼아 올린 악플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야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30인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 개최

국회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두, 강석호, 이찬열, 유성엽, 윤소하)와 공동으로 11월 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30명을 선정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이날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수록된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선정했다.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대상에는 전혜숙 (민주, 서울 광진갑), 윤재옥 (한국, 대구 달서을), 주승용 (바른, 전남 여수을), 박지원 (무소속, 전남 목포) 국회의원이 선정되었고, 선플상에는 기동민 (민주, 서울 성북을), 김병욱 (민주, 경기 성남분당을), 김성찬 (한국, 경남 진해), 김성태(비) (한국, 비례), 김세연 (한국, 부산 금정), 김수민 (바른, 비례), 김학용 (한국, 경기 안성), 노웅래 (민주, 서울 마포갑), 도종환 (민주, 충북 청주흥덕), 문진국 (한국, 비례), 박완주 (민주, 충남 천안을), 유은혜 (민주, 경기 고양병), 윤준호 (민주, 부산 해운대을), 이동섭 (바른, 비례), 이양수 (한국, 강원 고성양양), 이주영 (한국, 경남 마산합포), 이태규 (바른, 비례), 이헌승 (한국, 부산 부산진을), 임이자 (한국, 비례), 임종성 (민주, 경기 광주을), 전재수 (민주, 부산 북구강서갑), 조승래 (민주, 대전 유성갑), 조훈현 (한국, 비례), 채이배 (바른, 비례), 최인호 (민주, 부산 사하갑), 한정애 (민주,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 '2019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14일(토),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2019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보고대회는 올해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기자단 활동을 통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선플상 시상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평택 국제대학교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예방 연극공연이 진행되었고,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에서는 '안양 양명고등학교 정회석 교사'가 선플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회석 교사는 발표에서 "선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다"며 다양한 선플 활동을 통해 끈끈하게 뭉쳐지고 있는 학생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모습을 소개했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상에는 당산중학교 윤서희(청소년 표어부문) 학생, 오산고등학교 한규천(선플교육자료부문) 교사가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장관상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상, 국회상임위원장상, 경찰청장상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상, 대학 총장상, 구글, 네이버, KT, 선플재단 이사장상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논 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선플활동 경험과의 관계

민병철, 오경숙

1. 서론

인터넷은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이미 우리생활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열린공간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또래들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다[1]. 또한 공간과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며 취미활동 및 학업스트레스의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문화가 가지는 익명성, 광역성, 신속성, 자극성 등의 특징은 윤리적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 폭력, 악성 댓글 등에 관련된 불건전한 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매개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과 교육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불건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개개인이 윤리적 문제에 있어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존중의 자세, 정보사회에 대한 책임감 인지, 자율적인 행동통제, 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윤리교육은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특강형식의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글자 그대로 하이퍼미디어 세대이다. 이에 교육에 있어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즉, 하이퍼미디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정보통신'과 '윤리의식'을 합성한 용어이며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4]. 조일주와 김정겸[5]은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존중, 정의, 예절, 자율, 책임의 5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정보통신사회에서 개인 정보보호와 자신과 타인을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김을 의미하는 존중과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정의, 정보통신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 정보이용자 스스로의 자기 통제와 자신의 의지 조절을 하는 자율, 통신 예절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절을 지킬 때 바람직한 정보사회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교육의 확산에 비하여 정보통신 윤리 교육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 범죄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지적 재산권 및 사생활 침해, 악성댓글, 언어폭력이나 인간성 상실 등이 그 예가 된다. 실제로 사이버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 가운데 11.2%가 10대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6].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불량·폭력언어사용, 해킹, 저작권 침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문화 확산 등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이 많음알 수 있다. 이렇듯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7]. 이에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8].

청소년기는 자아의 발아기며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전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육 환경과 참여 중심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자아와 윤리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전예방교육이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여 청소년들의 실제 의식수준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한 댓글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플달기 운동의 다양한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9].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선플달기 캠페인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하위변인인 존중, 정의, 예절, 자율, 책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바르고 따뜻한 언어 사용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수준을 알아보고, 선플 활동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방법으로 선플달기 캠페인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전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은 선플활동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231명으로 남학생은 1,453명(65.1%)이고 여학생은 778명(34.9%)이다.

2.2 연구도구

2.2.1 정보통신 윤리의식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10]의 K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고 중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정·개발한 조일주와 김정겸[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구성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 윤리 의식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17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2017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플 달기 경험과 정보 통신 윤리 의식 조사를 위한 선플달기 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총 2,416명중 불성실 응답 185부를 제외한 2,231부, SPSS 21.0프로그램, 기술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검증)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상에서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높았고, 인터넷 사용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자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선플활동 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표 1]과 같이 선플활동 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51$, $p<.001$). 즉 선플활동 기간이 길수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6개월 미만과 다른 두 집단 간에 있었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정의와 책임은 선플활동 기간이 길수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높았다. 예절에서는 6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의 집단이 6개월~1년 미만의 집단보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높았다($F=11.94$, $p<.001$). 반면 존중과 자율에서는 선플활동 기간에 따른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선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 선플활동 기간에 따른 정보통신 윤리의식 차이(N=2,231)

변 인		N	Mean	Std. Deviation	Duncan	F
정의	6개월 미만(a)	535	3.07	.96	a<b,c	10.95***
	6개월-1년미만(b)	785	3.20	.84		
	1년 이상(c)	911	3.29	.81		
예절	6개월 미만(a)	535	3.40	.63	b<a,c	11.94***
	6개월-1년미만(b)	785	3.27	.59		
	1년 이상(c)	911	3.40	.57		
책임	6개월 미만(a)	535	3.24	1.00	a<b,c	15.86***
	6개월-1년미만(b)	785	3.32	.90		
	1년 이상(c)	911	3.50	.82		
전체	6개월 미만(a)	535	3.30	.48	a<b,c	12.51***
	6개월-1년미만(b)	785	3.32	.41		
	1년 이상(c)	911	3.41	.44		

***p< .001

4. 논의 및 결론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은 정보통신 윤리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편 이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자기 통제와 의지 조절을 하는 능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발달과 함께 성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더불어 인터넷 게임과 SNS사용을 통한 학업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84.5%가 음란물 접속 경험을 하며, 접속에 대해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3] 통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성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입에 대한 자기통제 약화원인[11]이 되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선플달기 캠페인 활동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선플 달기 활동기간이 길수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선플활동은 인터넷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친절하고 따뜻한 언어 사용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댓글을 쓰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캠페인 활동과 칭찬과 배려를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선플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이는 학생들이 선플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누는 선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의와 책임, 예절 항목에서 선플활동 경험이 긴 학생일수록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선플활동 경험을 통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정의'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기 규칙의 정도를 의미하는 '책임', 그리고 통신 예절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예절'과 관련된 윤리의식을 심화시키는 교육적인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플활동 경험이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위주의 교육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병행을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수학습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정보통신 윤리의식 측정 도구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구이므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까지 적합한 도구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선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한 소양이므로,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S. D. Seo. PC communication & Internet's present condition and effect for youth.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00).

[2] S. J. Kim.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eenager's Consciousnes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s. Department of Youth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3] G. M. Y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Ethics among Adolescents.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2007).

[4] Y. J. Oh.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In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Mo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5] I. J. Cho, J. K. Kim.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for the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5(4), 107-128.(2009).

[6]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3__3.jsp. Cybercrime Statistics 2015. (2015).

[7] J. W. Shin. An analysis of the state of teen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 Centered on the High School in Gwangjucity. Major in Information-Computer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2009).

[8] S. S. Kim, H. G. Yu, C. Y. Lee, S. H. Jo. Development of Test Items to Measure the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ducation,12(1), pp.145-169.(2009).

[9] www.sunfull.or.kr

[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2007).

[11]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l%3fno=2016050217162354225. 2016.05.02 17:37

[12] K. W. Han, E. K. Lee, Y. J. Lee. The Improved Information Technology Ethics Curriculum based on a Diagnosis of Adolescents' Information Technology Ethics Consciousness. Korea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4(2), pp.340-360.(2008).

사 설

악플의 피해자들 '스타의 자살'

최근 네티즌을 충격에 빠뜨린 두 명의 여성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화제다. 그것도 20대 꽃다운 나이에 누구나 꿈꾸는 스타의 꿈을 이룬 이들이어서 안타까움은 더하다.

설리 구하라 등 K팝 아이돌스타의 연이은 비보로 우리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올 11월 24일에 가수 구하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는 전날인 23일 자신의 SNS에 "잘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아이돌그룹 출신 구하라는 1991년생으로 올해 29세다.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했고 그룹해체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다.

지난 9월에는 남자친구 최모씨와 폭행과 불법촬영등을 주장하며 고소전을 벌였고 최근 일본연예계에 복귀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듯 했다.

구하라는 자신보다 한달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와 생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리의 사망소식이후 SNS를 통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애도를 했다.

네티즌들은 설리의 사망소식에 구하라를 걱정했지만 구하라는 "잘살겠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한바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구하라의 경우 남자친구 사건으로 심적고통이 극에 달해 그를 격려해주는 선플 하나 가 아쉬울 때였기에 선플대신 악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0월 14일 생을 마감한 가수겸 배우 설리는 2009년 에프엑스로 데뷔한 이후 2014년 악성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듬해 연기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팀에서 탈퇴했다

설리는 숨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SNS활동을 해왔다. 경찰은 악플러들에 의해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10대의 나이에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습생 생활을 하고 어렵게 데뷔하고 정상의 인기를 얻으며 그토록 원하던 스타의 자리에 오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악플과 우울증만 남은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10대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돌 가수들의 정서와 심리상태에 대한 관리뿐와 함께 악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릴 때부터 악플에 대한 경계와 선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나마 앞으로 있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쉬운 '악플의 밤'

스타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악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종편프로그램 '악플의 밤'이 조금 아쉽다.

이름조차도 '선플의 밤'으로 긍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악플의 밤, 선플의 밤'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악플의 밤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악플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악플의 밤'은 스타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악플들을 직접 읽으며 느낀 점을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악플의 밤' 이후에도 악플은 이어졌고 설리는 세상을 등졌다.

'악플의 밤' 의 취지는 좋았지만 출연한 연예인들이 악플을 읽음으로 해서 또 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노련하고 연배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아직 어리거나 젊은 연예인들은 상처를 다시 확인 한 셈이었다.

그들이 굳어가는 표정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 악플로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악플을 그만하자고 느꼈을까 그랬을 사람들이라면 악플조차도 달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기존 방송보다 유튜브에 더 친숙하고 그들은 인터넷으로 배우고 소통하고 울고 웃고 한다. 인터넷으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이루어 혈연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가족이 모인자리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각자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세상과 놀고 있다.

명절 제사상을 차려 절을 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 등의 반응으로 일희일비 하기도 한다.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칭찬은 다름 아닌 선플이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성장할 때 혹은 어려울 때 선생님이나 영향력있는 사람의 진솔한 격려는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처럼 악플과 선플은 그 말 한마디의 역할을 한다.

여론의 선두의 서고 있는 방송매체들의 역할은 더욱 크다. 방송매체들은 인터넷 세상에서도 만나기 때문이다.

여론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악플과 선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미파악부터 시급하게 해야 할 때다.

악플 추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 선플캠페인 정기 기부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11-456034 (선플재단)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여영미 인쇄 · 이병동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22호

대표전화 02)535-3449 팩 스 02)6008-3377

편 집 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보생명 60년의 믿음
교육이 미래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변치않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육보험을 다시 선보입니다.

교육자금을 보증하는 신개념 변액교육보험
미리 보는 (무)교보변액교육보험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대학학자금, 어학연수 비용, 주거 비용 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금 마련 가능
[든든한 최저교육자금 보증] 운용성과에 관계 없이 최저교육자금을 보증하고,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교육자금 지급
[성장기에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으로 치아, ADHD, 암 등 다양한 질병보장에 수술 및 입원까지(해당특약 가입시)

KYOBO 교보생명

*최저교육자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금, 교육자금 보증, 미래준비자금 보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808-20 상품지원팀(2018.08.2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198호(2018.8.24)